



"대비-공감-도전" 팬데믹 시대, 전태일 정신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해 10달째 이어진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직은 모릅니다. 전태일 3법 입법운동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년 11월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예년처럼 많은 조합원을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 안타깝습니다. 어서 얼굴 마주보며 부둥킬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일상 속 전태일 정신

노동자대회를 맞아 팬데믹 시대의 전태일 정신은 어떤걸까 생각합니다. 전태일 정신은 노동자대회 날 하루, 그 집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향한 전태일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고자 우리는 매년 노동자대회 뿐 아니라 일상에서 권리와 존엄을 향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11기 경기지부는 **대비-공감-도전**의 기조로 재난기-전환기 속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재난 앞에 못다한 계획도, 아쉬운 일들도 많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다음을 준비해 갈 시기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지부 사업장들은 코로나 여파에 의한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의 충돌 없이, 집단감염에 의한 셧다운 없이 대부분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각고의 방역 노력, 지레 겁먹은 대응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않고 현명하게 교섭과 투쟁, 일상을 이어온 자력현장의 힘.

모두가 8천 조합원의 노력 덕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위기는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전태일 정신이 팬데믹 시대에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과제를 그려갑시다.

대비 2020

올 해 핵심계획은 교류의 장, 서로 옹호, 지부의 기둥이 되는 **집단교섭 확대**로 **지부의 미래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집단교섭 사업장들은 새로 합류한 사업장을 위해 요구의 문턱을 낮췄고, '처음과 끝 함께'를 지켰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말레동원화성지회와 모베이스전자지회가 2022년 집단교섭 참가를 합의했습니다.

현대모비스 화성, 평택, 안양과 현대위아안산 등 모듈부품사는 집단교섭 참가와 공동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전국 10개 지회는 2022년부터 공동교섭, 2021년에는 모비스가 참여하는 미래차위원회와 교대제개선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단교섭 참가 논의 계획도 합의에 명시했습니다. 현대위아 전국 3개 지회 또한 위아가 참여하는 노사포럼을 만들어냈습니다.

집단교섭 확대는 산업 전환기에 대비하고 전망을 열어가는 집단교섭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환기 노동조합의 전략마련을 위한 대비도 첫 발을 뗐습니다. 3차례 **미래차 기획교육**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우리 삶의 변화, 노동조합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공감 2020

초유의 사태 속 지부는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조합원 설문**에서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호시우보-호랑이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소처럼 신중하게 걸어가자"는 방향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권역별 관계강화사업 첫 발을 떼고, 각 권역별 간부들부터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집회에서 보는 동료에서 서로의 찐스토리를 알아가는 동지로, 나아가 내년에는 조합원까지 공감을 키워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권리함께의 공감도 이어집니다.

회사 전망을 위해 투쟁하는 한국와이퍼를 응원하기 위해 지부 380명 간부들이 왕복 10시간 버스를 타고 창원의 덴소코리아에 다녀왔습니다.

신생 현대모비스안양, 조직전환한 새식구 모베이스전지도 무사히 단협을 맺었고, 할리데이비슨도 교섭과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청북에 보그워너평택 지회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도전 2020

코로나 위기 속에 세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배달, 간병, 급식, 청소, 경비노동자. 대다수 저임금 무권리 상태로 일해 온 이들이 오늘날 **모두의 생존을 안전하게 지키는 필수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부에도 이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도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조리원 노동자들은 설립 2년차 당당하게 첫파업을 하고 필수노동자로서의 존중과 인력충원을 요구, 권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케피코지회는 사내 경비보안업체 동료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맞아 함께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틈은 권리의 씨앗은 그 자체로 팬데믹 시대 소중한 노동을 돌아보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향기 이번 호에는 지부 사업장의 한 해를 돌아보는 짧은 기사들을 모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일상 속의 전태일을 찾고 키워가는 마음으로 한 해를 공유해주신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 대비-공감-도전의 전태일 정신을 쫓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두-명장면-1년농사결실-미래 우리 2020년 돌아보니

계양전기지회의 2020년은 기다리는 한해였다.

여느 지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악조건 속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했다. 어느 때보다 힘을 빼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부와 노조 전체 상황을 지켜보며 조금은 loose하게 보냈다.

2020년 화두는 '적정인원' 이었다. 해마다 발생하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환배치를 통해 결원을 채우려는 회사의 꿈수에 대응하는 것이다.

5월 6일 상견례부터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은 빠짐없이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했다. 힘든 경영현황과 일거리감소를 앞세워 조합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임금성은 더더욱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계속 양해만을 바랐다. 휴가를 보낸 후 수출규제가 완화되고 물량증가와 과부하 상황이 맞물려 추석 전 의견일치를 하고 차기 임단협에 좀 더 힘을 싣기로 했다.

2020년 농사의 결실은 다른 것 보다 조합원들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다. 올해에는 성과보다 조합도 일부 양보하고 다음 교섭을 준비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올해가 끝이 아님을 이해하며 조합원들은 믿음을 보여주었다. 아쉬운 점은 조합 또한 올해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투쟁다운 투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양전기지회는 지금도 더욱더 안산공장과 천안공장간 소통으로 하나 된 힘을 기르는 데에 힘써야하겠다.

대원산업안산지회의 2020년은 아쉬운 한해였습니다.

20년 대원 안산지회의 화두는 통상임금과 코로나정국에서의 신차종 출시였습니다.

6월초에 용봉산 정상에서 진행한 안산&평택지회 확대간부 결의대회와 이제는 한명의 조합원도 열외 없이 참석하는 출근선전전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휴업을 진행하는 날 안산의 화성 노조 출근선전전에 참여한 것, 확대간부 교육이 특별한 일상 활동이었습니다.

올해 농사의 결실은 2013년부터 노사 간에 논란을 시작한 통상임금 교섭을 마무리한 것이고,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 만족하지 못한 수준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창지회의 2020년은 조합원과 함께 하는 한 해였다.

올해 키워드는 조합원과의 밀착사업이다. 2016년 지회 설립부터 작년 까지 매년 부당한 사측에 맞서 권리를 지키는 투쟁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과의 소통, 함께하는 사업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매해 교섭에 들어오던 노무사가 빠진 게 고무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시도 하였고 나름대로 결실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안전캠페인 사업(탈의장 라커에 가족사진과 산업안전표어문구를 부착하여 출퇴근시 소중한 가족사진을 보고 안전작업을 하기를 위한 사업). 모든 조합원이 동참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안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격증 지원사업 지회에서 업무연관성과 수당이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세웠다. 시험 접수와 스터디, 시험장 갈 때 차량 편성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현재 17명 국가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목표였던 20명은 무난히 달성할 듯 하다.

놀러 오세요 대순이 주말농장 지회에서 주말농장을 대여해 쌈을 재배하고 농장 쉼터에서 간단히 고기를 구워 먹으며 많은 얘기를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다.

인생은 60부터 정년을 맞이한 조합원의 현장에 찾아가 즉석에서 케익과 부서원들이 마련한 선물을 건네며 그동안의 노고를 축하했다.

한 해를 보내며 아쉬운 점도 많다. 코로나로 집회가 거의 무산되고, 사측과 큰 마찰이 없었기에 투쟁 DNA가 많이 움츠러 들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움츠렸던 투쟁 DNA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도록 노력하겠다.



대한솔루션지회의 2020년은 모두가 성장한 한해였다.

올해 화두는 19년도 당기순이익 315억이었다. 작년 5개 지회 노조가 설립되면서 어렵다던 회사, 그러나 315억이라는 역대 최고 순이익을 남겼다. 1월부터 조기 교섭을 하면서 10월 체결까지 10개월간의 투쟁으로 5개 지회의 확대 간부와 조합원 모두가 성장하는 투쟁이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정하면 한마디 불평도 없이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모여서 파업투쟁을 전개한 조합원, 확대 간부들 또한 임원들이 교섭으로 없어도 강고한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0 농사의 결실은 5개 지회의 노동조건통일, 미래 발전적 단체협약 체결이다. 그동안 5개 지회가 각자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수당을 받아왔다. 18년 12월 5개 지회를 건립, 작년 5개 지회 공동교섭, 비정규직 철폐를 하였다. 그때 통일하지 못했던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을 올해 비로소 맞췄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초기 임금인상목표였던 시급 1000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대한 솔루션지회는 5개 지회가 하나의 노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말레동현화성지회의 2020년은 "더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우리의 화두는 지부집단교섭, 토요일완전유급입니다. 임단협 동안 사측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며 임금동결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로 인해 넘쳐나는 물량에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36년간 우리 것이었던 밥, 간식, 커피를 말도 없이 안주는 사측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점심선전전에 진성의 보릿고개를 확대간부들과 함께 매일 틀었습니다. 코로나로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소수모임을 자주 하도록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올해 농사의 결실은 지부집단교섭과 토요일유급 추가 4시간이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크고 튼튼한 집을 잘 지키기 위해 소통을 중시할 것입니다.



모베이스전자지회의 2020년은 전 조합원의 단결된 한해였다.

2020년 우리 사업장에 화두는 서연전자에서 모베이스전자로 자본이 변경된 것이었다. MG공장 물적분할이라는 사측에 일방적인 도발에 맞서서 수원, 천안, MG공장 전 조합원이 단결하여 부분파업, 출근선전전, 중식선전전, 경기지부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물적분할 철회를 이끈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

코로나19상황에서 여러 가지 단체행동을 진행하는 게 어려웠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측정 등 적극 실천하여 코로나 19전염을 막고 여러 가지 단체행동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2020년 농사의 결실은 단결이다. 아쉬운 건 소수 조합원의 이탈이다. 앞으로 소수의 의견도 귀를 기울이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을 믿고 앞으로 전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삼화지회의 2020년은 뜨겁게 투쟁한 한해였다. 올 해 우리의 화두는 단결투쟁이었다.

3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2차에 걸친 끝에 임단협을 마무리 단계로 마쳤다. 특별히 기억나는 점은 파업출정식이라는 큰 경험을 한 것이다.

2020년 농사의 결실은 새로운 경험으로 단결력을 느꼈다는 것이며 아쉬운 점은 의욕이 앞서 소소한 잡음과 미진한 결실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스마트하게 승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에스제이엠지회의 2020년은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다.

2020년 우리 사업장의 화두는 고용안정이었다. 임단협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고용보장에 관한 근심걱정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리 회사의 휴업이었다. 2020년 농사의 결실은 의외의 임금인상이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 일감이 없어 투쟁의 전술 효과가 부족했던 것이다. 앞으로 고용보장을 위한 전 조합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고 싶다.



유베이스수원지회의 2020년은 '채움'과 '비움'을 반복하며 욕심을 비워내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매우 hot한 한해였습니다.

올 해 우리 사업장의 가장 큰 화두는 48명 조합원 모두 임금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상여금'이었습니다. 3개월간 자력으로 얻은 결실이 뿌듯하지만, 교섭설명회로 매번 내용을 공유하였음에도 조합원 참여도가 낮았고 잘못된 이해로 서로 갈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나쁜 것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처럼 말로 인해 서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지만, 그 또한 강하게 이겨내어 한층 더 성장한 우리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사업장 콜센터인 만큼 각 자리에 가림막 설치, 혼밥먹기를 실시했고 조합원 스스로가 잘 지켜 주었기에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가장 큰 농사의 결실 상여금입니다. 조합원들 간에 달랐던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맞춰 한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상여금을 받던 조합원들이 못 받던 조합원을 위해 욕심내지 않고 미래를 택한 것이 소중한 결실입니다. 아쉬운 점 또한 '상여금'입니다.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의견이 필요했지만, 불만으로 표시될 때 상

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와해되지 않고 길게 갈 수 있도록 단합의 지혜가 있는 지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큐피앤씨지회의 2020년은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투쟁 승리를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임단협 초반에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월간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 시간 중 석식시간 30분 제외, 경조사 지원금 일부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개악안을 제시하여 노사간 심리전을 시도했습니다. 전조합원의 단결투쟁으로 개악안 폐기가 결정되고 초반 주도권을 조합이 쥐었습니다.

2020년 우리 사업장의 화두는 코로나19가 아닐까 합니다. 엄청난 전염력, 무증상 감염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까다로운 질병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한 명이라도 확진판정이 나서 사업장폐쇄를 하게 되면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제공하고 경비실에 비접촉 온도계를 비치하여 매일 출/퇴근시 온도체크와 관리, 10분 간격으로 2조로 나누어 식사시간을 가지는 등이 대책을 세우고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서 현재까지 단 한명도 확진자가 없습니다.

2020년 농사의 결실은 복지개선입니다. 원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면서 적립하지 않으려 했던 퇴직연금을 매출이 적더라도 기존보다 더 증액해서 적립하고 매출이 좋은 때에는 그보다 더 적립하는 단체협약 결실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계휴가도 평일 3일휴가에서 1일을 더 늘리고 상품권이나 선물세트 등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적극적이지 않은 조합활동 참여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합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조합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조합원간 더욱 더 끈끈하게 동지애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순간에는 함께 힘을 싣고 바깥으로는 회사가 독단적으로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려 하면서 권리를 빼앗으려 할 때 이를 견제하고 조합을 지켜내고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코리아에프티지회의 2020년은 노동조합의 기본이 되는 조합활동 시간을 쟁취한 한 해였다.

지회는 올해 코로나19로 단체교섭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사장이 바뀌어 많은 고민도 했다. 단체협약에 조합활동 시간 보장과 조합원 교육시간, 풀타임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큰 숙제였다. 본 교섭 17차, 실무 교섭 18차를 통해 많은 부분 쟁취했다.

2020년 우리 사업장의 화두는 파업이었다. 파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조합원들 사이에서 올해 회사 사정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구역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했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측은 개별교섭을 택했다. 지회는 회사의 꼼수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를 압박하고, 노노갈등의 원인이 노무담당임을 회사에 각인시켰다. 올해 한국노총의 개별교섭은 마지막에 교섭포기를 해 의미없이 마무리 됐다.

코로나19 속 특별한 일상활동은 많이 못했지만, 구역별 소모임을 통해 조직 활동을 했다.

2020년 농사의 결실은 조합활동 시간과 지회 차량이다. 아쉬운 점은 조합원 수당이다. 항상 부족했던 조합활동 시간을 올해 상당 부분 쟁취했고, 지회 차량을 회사에서 받은 것이 큰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금속 조합원만을 위한 조합원 수당을 쟁취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위한 주간 연속2교대의 방향을 잡고 노력한다.

현대모비스화성지회의 2020년은 판을 뒤집은 한 해였다.

2020년 우리 사업장의 화두는 미래였다. 5월 교섭을 시작, 8월말 쟁의권을 확보하고 매주 출근선전전을 진행했고 10월 12일(월)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 전기차로 자동차산업의 전환 속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 점심시간마다 자발적으로 선전전과 투쟁을 진행했던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다.

코로나19로 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이기 어려웠다.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다수가 모이지 않고 조합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방구석 문화제』,『전국영상 노래자랑 화성지회 편』,『현대모비스 화성지회 기네스』등을 진행했다.

2020년 농사의 결실은 내일을 위한 발판 마련이다. 아쉬운 점은 2교대 전환 이전과 이후 입사자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지 못한 점이다.

앞으로 지회활동을신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현대모비스평택지회의 2020년은 “미래차 전환기와 코로나19 재난기 속 미래를 여는 해” 였습니다. 2020년 전국현대모비스·위아 14개지회의 공동투쟁으로 향후 공동교섭을 위한 교섭주기 및 임금체계 통일과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이 화두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현대그룹의 오래된 타결 순서(완성차→계열사→계열사 하청→비계열사 하청)가 전개되어 현대차지부 타결 후에야 첫 제시안을 받는 수순을 밟았지만, 계열사 하청인 우리 모비스·위아 부품사연대가 계열사보다 선타결을 하게 되는 새 판이 짜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현장의 굳건한 조직력을 위해 조직부에서 주1회 시행한 “출근선전전”과 “각종 야나두 현장행동”을 진행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직접대면 현장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선부에서 하계 휴가전에 “야나두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270명 조합원 전원이 개인의 종이에 “20투쟁 한마디”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름휴가 꿀팁과 안부”를 적고 누군지 모를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마니또 형식으로 진행을 해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2020년 임금단체협약 농사의 결실은 “미래로 가는 새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부집단교섭에 참가를 쟁취하지 못하고 현대모비스·위아지회만의 공동교섭만 쟁취한 점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공동투쟁으로 금속노조 산별교섭체계에 동참하여 가까운 지역 노동자들과 더욱더 가까이 함께하는 투쟁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는 현대모비스 평택지회가 되겠습니다. 투쟁!

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의 2020년은 완전무장 쟁의의 시작을 제대로 보여 준 한 해였다.

올해의 화두는 인원충원이다. 지난 10여년 퇴직인원을 야금야금 줄이고 조리원 자리에 전문직을 고용하는 사측의 행태에 우리는 노동조합이 생긴 이상 더는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쟁의권을 확보하고 처음 연장, 특근거부부터 4시간파업, 게릴라, 기습파업을 진행하면서 전조합원의 흐트러짐없는 단결력을 보였다. 그 강함은 곧 간절함인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행동한 것이 그야말로 ‘이게 그린푸드 노동조합이구나’를 느끼게 했다.

코로나19 속 우리는 필수노동자다. 그런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 해도 하루에 업장에서 수천명에게 노출된다. 기존 중식 1시간 배식에서 거리유지를 위한 2시간 배식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노동도 배로 가중됐다. 힘든 상황 속에도 그린푸드에서는 감염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2시간 시차배식수당 하루 1만원과 유급휴일을 쟁취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던 우리 조리원들이 아니다.

2020년 우리농사는 아직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가 없다. 아직 임금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이제 막 인력충원과 조합활동 등에 노사가 의견접근을 하는 중이다. 하지만 올해 임협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서로 다른 의견이더라도 목표는 같기에 함께할 수 있고, 뜬말이 되는 것이 길어야 밥맛도 좋다는 것이다. 힘든 댓가를 치른 결실이 혹여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힘들었던 수고들이 헛수고가 아닌 내일의 거름이 되고 방향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게 결실이라면 결실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평생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가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첫술에 배부르랴!! 차근차근 배우고 노력하고 한 해 한 해 후퇴 아닌 성장으로 가는 그린푸드가 되는 것이 바람이며 꼭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이다.



현대모비스안양지회의 2020년은 만남이 있던 해였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해 만나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지만 서로 알지 못했던 동지들과 만나고, 함께 연대해 활동하는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2020년 안양지회의 화두는 현장개선을 위한 인원 충원이었습니다. 처음 모두 의기투합하여 구역별 대의원들이 조합원 의견들을 취합하여 정확한 근거를 만들고 사측에 요구하여 얻어냈습니다.

임단협에서는 다른 모비스 지회를 따라가다보니 잘 되었습니다. 처음 노조를 결성할 때 회사 안 밖에서 출근선전전하며 목소리가 설 정도로 구호를 외치며 투쟁하던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동 및 모임이 제한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휴가 전 2020 여름 휴가사진 콘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조합원 모두 관심 한번 정도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농사의 결실은 임단협을 맺은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협동심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안정된 노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